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13~2022년 기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근소한 감소를 보인다. 같은 기간 행복감은 상승하였으며, 걱정과 우울감은 감소하였다.
- 주관적 웰빙의 남녀 간, 20~30대와 40~50대 간 차이는 2023년에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과 다른 연령층 간 차이는 여전하다. 학력 및 가구소득 집단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큰 변화가 없다.
- 사회적 지지의 결여, 삶에서 선택의 자유 부족, 미래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의 사회적 요인은 주관적 웰빙을 낮추며,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다.
-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경제적 성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생애주기 및 출생코호트별 양상은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과 유사하게 청년층과 최근 출생코호트가 높고, 노년층과 베이비붐 세대가 낮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지는 총괄적 느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은 주로 객관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다루지만, 주관적 웰빙 영역은 '주관적'이라는 수식어가 나타내듯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 평가와 느낌에 초점을 둔다. OECD에서는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해 반드시 주관적 웰빙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해 주관적 웰빙을 중요한 지표로 다루고 있다. UN 또한 매년 발간하는 「세계행복보

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주관적 웰빙을 행복에 대한 측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주요 사회인구학적 집단 간 차이의 변화를 파악한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 가치관, 삶에 있어 선택의 자유, 사회이동 가능성 전망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OECD 및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주관적 웰빙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본다.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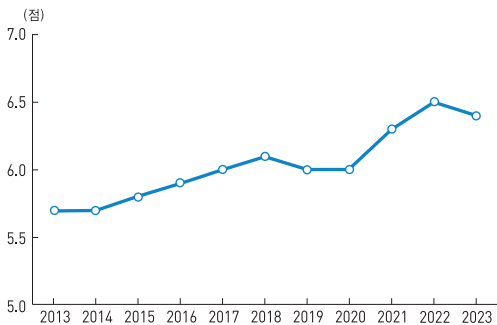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의 대표적인 측정 영역인 삶의 만족도부터 살펴보자. 삶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0점부터 가장 높은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해 2013년부터 매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측정 결과를 보면, 2013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5.7점에서 2018년 6.1점으로 높아진 후 2020년까지 6.0점으로 정체를 보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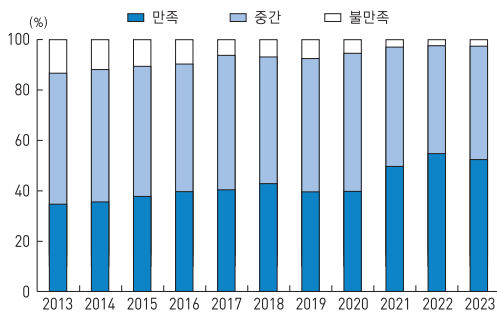
2022년 6.5점까지 높아졌다. 2023년 현재 6.4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다(그림 XII-1-1).

[그림 XII-1]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및 응답 분포, 2013-2023

1) 평균 점수



2) 응답 분포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응답 분포의 경우, 0~3점 응답을 '불만족', 4~6점 응답을 '중간', 7~10점 응답을 '만족'으로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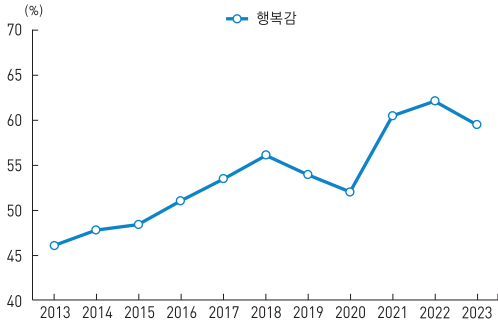
[그림 XII-1-2]는 11점 척도에서 0~3점 응답을 '불만족', 4~6점 응답을 '중간', 7~10점 응답을 '만족' 등으로 범주화하여 2013~2023년 기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불만족 비율은 2013년

13.5%에서 2017년 6.1%로 7.4%p 감소했고, 만족 비율은 같은 기간 34.8%에서 40.5%로 5.7%p 증가했다. 이기간에 불만족이 감소한 정도가 만족이 증가한 정도보다 더 크다. 만족 비율은 2020년 39.8%에서 2022년 54.7%로 2년간 14.9%p 증가했다. 이후 2023년 만족 비율은 52.5%로 전년 대비 2.2%p 감소했다. 2022년 이후 불만족 비율은 3%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인다.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또 다른 중요 영역은 정서 경험이다. 긍정적 정서 경험이 많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적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긍정적 정서 경험을 행복감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 10점까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 경험은 걱정과 우울감으로 '전혀 걱정(우울)하지 않았다' 0점에서 '매우 걱정(우울)했다' 10점까지 각각 11점 척도로 측정한다.

[그림 XII-2]는 긍정적 정서인 행복감 경험 비율이 2013~2023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행복감 경험 비율은 0~10점 응답 중 7~10점 응답을 행복함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했다. 행복감 경험 비율은 2013년 46.0%에서 2018년 56.0%까지 늘었다가 이후 줄어들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52.0%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22년 62.0%가 되었으며, 2023년에는 59.4%로 줄었다. 2019~2020년 기간에 일시적 감소를 제외한다면 긍정 정서로써 행복감 경험 비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6.0%p 증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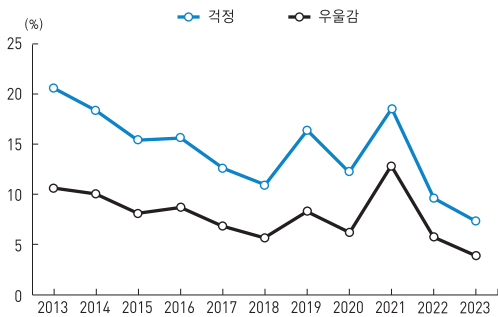
[그림 XII-2] 행복감 경험 비율,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행복감 경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행복했다(7~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부정 정서의 경험은 2013년에서 2023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림 XII-3]은 걱정과 우울감에 대한 0~10점 응답 중 7~10점에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걱정은

[그림 XII-3] 걱정 및 우울감 경험 비율,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걱정 경험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지에 대해 '걱정했다(7~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우울감 경험 비율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해 '우울했다(7~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경험한 비율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걱정을 경험한 비율은 2013년 20.5%에서 2023년 7.3%로 13.2%p 감소했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또한 2013년 10.6%에서 2023년 3.9%로 6.7%p 감소했다. 걱정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이전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2022년과 2023년에는 걱정과 우울감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요약하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 경험 비율은 2020년에 각각 39.8%와 52.0%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걱정과 우울감 경험 비율은 2021년에 각각 18.5%와 12.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의 주관적 웰빙 수준 하락은 지속되지 않았고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다.

주관적 웰빙의 집단 간 격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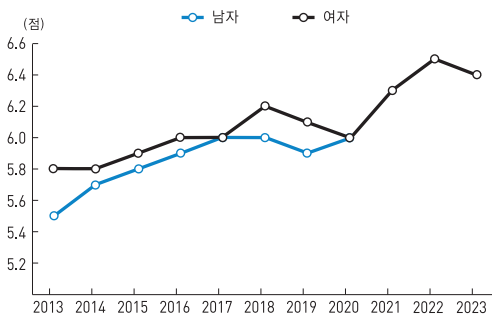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은 일과 여가, 건강과 가족, 소득과 소비, 환경과 주거 등 삶의 다양한 영역들의 상태를 종합해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구적, 사회경제적 구분에 따른 집단 간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 질문은 경제적 성과로써 소득의 불평등이나 격차를 확장해 삶의 전반에 걸친 성과로써 삶의 질의 불평등이나 격차가 어떠한지를 묻는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및 거주지역별로 주관적 웰빙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주관적 웰빙의 대표적인 측정치라 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활용해 집단 간 시계열 비교를 한다.

[그림 XII-4]는 2013~2023년 기간에 남녀 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남성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5.5점인 반면 여성은 5.8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체로 2019년까지 지속된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2023년까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삶의 만족도에서 남녀 간 격차가 2020년 이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XII-4] 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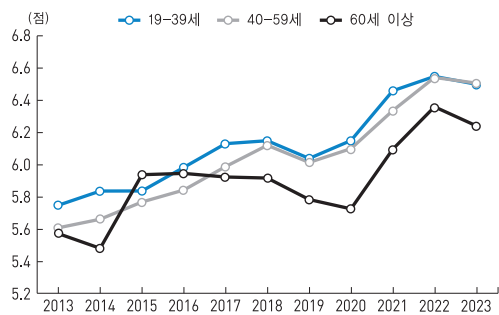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같은 기간 연령집단 간 차이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주관적 웰빙에서 연령은 중요한 비교의 기준이 된다. 연령을 세분화해서 비교할수록 정확한 연령집단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연령을 세분화할수록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어려운 복잡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20~30대, 중년기에 해당하는 40~50대,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으로 연령집단을 나누어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차이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XII-5]는 2013~2023년 기간에 세 연령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3년에는 청년층이 중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2015년 연령집단별 패턴이 일시적으로 뒤집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2017년까지 청년층의 만족도가 중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2018년

[그림 XII-5] 연령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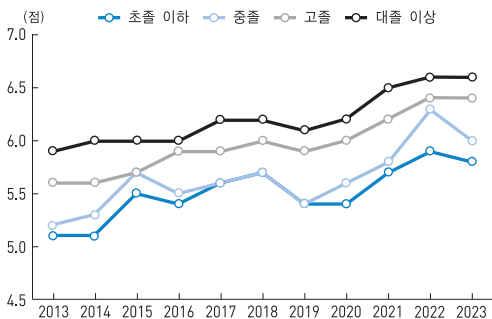
부터 중년층의 만족도가 높아져 청년층과 비슷하거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노년층의 만족도는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뒤처지는 패턴이 계속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노년층과 다른 연령층의 격차가 가장 컸다. 이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2023년 다시 격차가 커져 노년층의 낮은 삶의 만족도가 두드러진다.

[그림 XII-6]은 학력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평균이 높은 패턴은 일관되게 지속된다. 하지만 집단 간 격차의 정도는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 이상 집단과 다른 학력 집단 간 차이는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초졸 이하와 중졸 집단 간, 중졸과 고졸 집단 간 차이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과 2022년에는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집

단 간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반면 2013~2014년, 2020~2021년, 그리고 2023년에는 학력 집단 간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이 근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던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학력 집단 간 차이는 부분적으로 연령집단 간 차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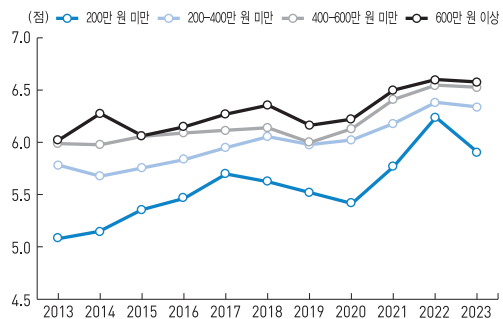
[그림 XII-7]은 가구소득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은 패턴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주된 변화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200만 원 미만 집단과 다른 가구소득 집단 간 나타난다. 2013년 200만 원 미만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바로 위의 200~400만 원 집단과는 0.7점, 그 외

[그림 XII-6] 학력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7] 가구소득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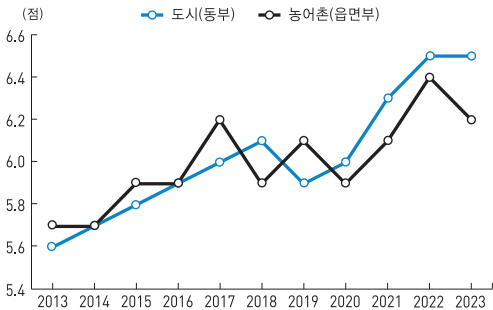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위 소득집단들과는 0.9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차이는 2022년에는 200~400만 원 집단과 0.2점, 그 외 상위 소득집단들과는 각각 0.3점, 0.4점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다시 격차가 늘어 200만 원 미만 집단과 다른 상위 소득집단들 간 차이가 각각 0.4점, 0.6점, 0.7점으로 늘어났다.

[그림 XII-8]은 도시와 농촌 거주집단 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서 농어촌은 '읍면부', 도시는 '동부'로써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이며 경제활동이나 그 밖의 도시와 농어촌 구분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림 XII-8] 거주지역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2013~2017년 기간을 보면, 농어촌 거주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도시 거주집단에 비해 근소하게나마 높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

된 2020년부터는 도시 거주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농어촌 거주집단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23년에는 이전에 비해 농어촌과 도시 거주집단의 주관적 웰빙 차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 웰빙 특히 삶의 만족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의 정도는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남녀 간 차이의 경우 줄곧 여성이 높다가 2020년부터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연령집단 간 차이는 2017년까지 청년층이 중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높다가, 이후 청년층과 중년층 차이는 줄어들고 노년층과의 차이는 벌어지게 되었다. 학력집단 간 삶의 만족도 차이는 대체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집단 간 차이는 200만 원 미만 집단과 다른 상위 소득집단들 간 차이가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나고, 이후 다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거주지역 간 삶의 만족도 차이는 농어촌이 근소하게 더 높다가 2020년부터 역전되어 도시 거주집단이 농어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관적 웰빙의 사회적 요인들

한국은 물질적 삶의 수준에 비해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UN이 매년 발행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행복의 사회적 기반(social foundation)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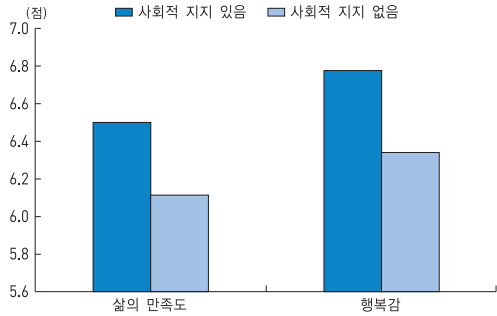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즉, 주관적 웰빙은 물질적 삶의 수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사회적 지지의 유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가치관, 삶에서 선택의 자유, 그리고 노력에 의한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전망이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본다. 이때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경험 정도를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어려움과 곤란을 (1)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경우, (2)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경우, (3)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묻고, 이러한 경우들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몇 명인지를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지지 없음'으로, 그 반대인 경우 '사회적 지지 있음'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그림 XII-9]는 사회적 지지 유무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6.11점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0.39점 낮으며, 행복감

평균 점수는 6.34점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0.44점이 낮았다.

[그림 XII-9] 사회적 지지 유무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평균 점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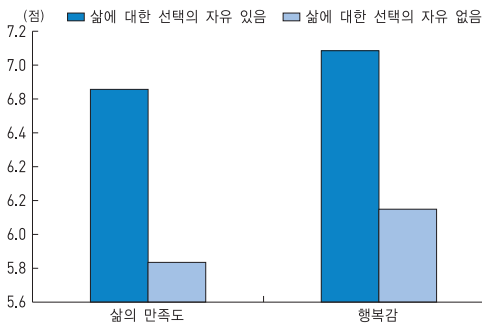
-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사회적 지지 유무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경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서 어느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지지 없음'으로, 모든 경우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회적 지지 있음'으로 분류하였음.
 - 3)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 4) 행복감 평균 점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3.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주목하는 것이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이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개인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 10점까지 11점 척도로 묻은 결과 평균 점수는 6.6점이다. [그림 XII-10]은 삶에서 선택의 자



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삶에서 선택의 자유 없음'은 0~6점 응답을 묶은 것이고, '삶에서 선택의 자유 있음'은 7~10점 응답을 묶은 것이다. 결과를 보면, 삶에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 점수는 각각 5.84점, 6.15점으로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각각 1.02점, 0.94점 낮았다.

[그림 XII-10]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유무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평균 점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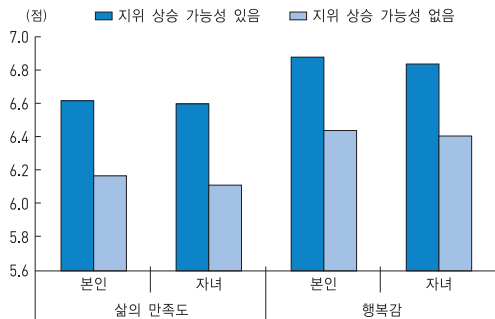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유무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로운지에 대한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의 응답 중 7~10점 응답을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있음', 그 외 응답을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없음'으로 분류하였음.
 3)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4) 행복감 평균 점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3.

미래가 불안하거나 희망이 약하면 주관적 웰빙도 낮아질 것이다. 본인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주관적 웰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개인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긍정 여부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XII-11]은 본인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과 부정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 점수 차이를 보여준다. 노력을 통한 본인의 지위 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인 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 점수가 각각 6.17점과

[그림 XII-11] 본인 및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평균 점수,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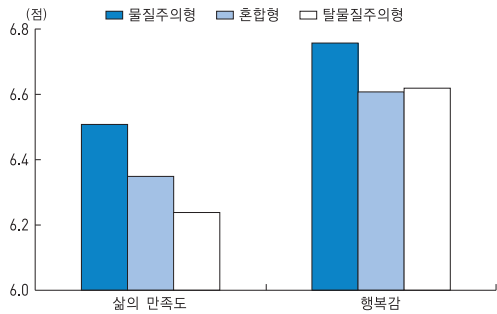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동 가능성 인식은 본인 및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 각각 동의(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한 경우 '지위 상승 가능성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지위 상승 가능성 없음'으로 분류하였음.
 3)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4) 행복감 평균 점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3.

6.44점으로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각각 0.45점과 0.44점 낮았다. 또한 노력을 통한 자녀의 상승이동 가능성에 부정적인 집단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 평균 점수가 각각 6.11점과 6.41점으로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각각 0.49점, 0.43점 낮았다.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그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는 최근 주관적 웰빙의 상승에 대한 억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 역시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서구에서 부국강병 중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20세기 후반 개인의 자유와 참여, 다양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의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국가 목표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가치관은 ‘국가 질서유지’와 ‘물가인상 억제’를 국가의 향후 중요 목표로 모두 선택한 경우 ‘물질주의형’으로, ‘중대 국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증대’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모두 선택한 경우 ‘탈물질주의형’으로, 둘 중 하나씩 교차로 선택한 경우 ‘혼합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가치관 유형화 결과, 물질주의형은 응답자의 44.0%, 탈물질주의형은 8.0%, 혼합형은 4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XII-12]는 세 가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물질주의형, 혼합형, 탈물질주의형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각 6.51점, 6.35점, 6.24점으로 나타났다으며, 행복감 평균 점수는 각각 6.76점, 6.61점, 6.62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행복감 평균 점수 비교에서는 물질주의형과 다른 가치관 집단 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한국이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이 사회적 기반의 취약 때문

[그림 XII-12]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의 가치관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평균 점수, 2023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가치관 유형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2가지 선택 중 '국가의 질서 유지' 및 '물가인상 억제'라고 응답한 경우 '물질주의형'으로,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증대' 및 '표현의 자유 확대'라고 응답한 경우 '탈물질주의형'으로, 그 외 응답은 '혼합형'으로 분류하였음.
 3)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4) 행복감 평균 점수는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3.



에 충분히 상승하지 못한다는 관찰과 연결된다. 즉, 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경우 물질적 성취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물질적 성취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경우 삶에 대한 만족이 낮고 행복감 수준도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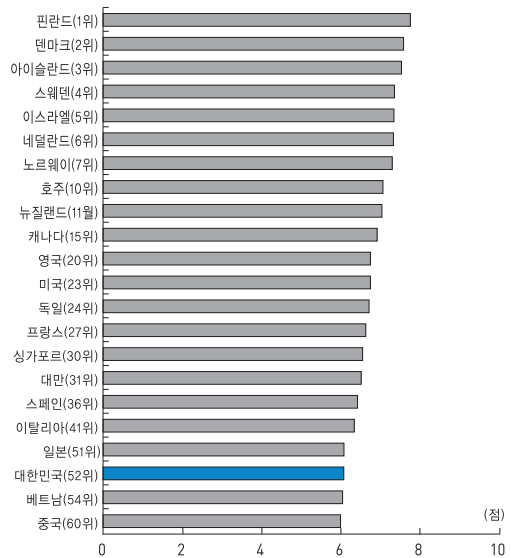
과 중국은 6.0점이다. 한국은 2006년 이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상승한 편이지만 일본과 함께 50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10여 년 전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은 30위권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주관적 웰빙의 국제 비교

한국의 주관적 웰빙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집단별 주관적 웰빙의 차이는 국제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UN에서 발행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을 조사한 「갤럽월드폴」 자료를 이용해서 주관적 웰빙을 비교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다.

[그림 XII-13]은 2024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 보고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2021~2023년 삶의 만족도 평균값이다. 이전 연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유럽에 속한 국가들이 평균 7점 이상으로 최상위 순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일본을 제외한 G7에 속하는 국가들로 6.3점에서 6.9점 사이에 걸쳐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6.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한국과 일본은 6.1점, 베트남

[그림 XII-13] 주요 국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21~2023년 평균



주: 1)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국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 점수로서, 3개년도(2021~2023년) 조사 결과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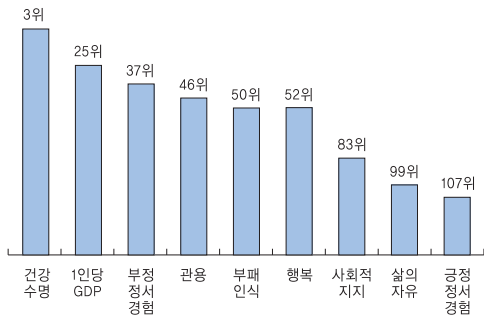
2) 괄호 안의 숫자는 143개국 중 해당 국가의 순위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2024.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주관적 웰빙의 물질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림 XII-14]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국가 간 회귀분석에서 주관적 웰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과 주관적 웰빙의 수준들에 대한 한국의

국제 순위를 보여준다. 한국은 건강수명에서 최상위 수준인 3위이며, 1인당 GDP 역시 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5위이다. 타인에게 베푸는 관용 수준은 46위, 부정 정서 경험은 106위로 순위를 뒤집으면 37번째로 낮으며, 부패인식은 93위로 역시 순위를 뒤집으면 50번째로 낮아 중상위 수준이다. 반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사회적 지지의 경우 83위,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에서의 자유는 99위, 긍정 정서 경험은 107위로 매우 낮아 하위권에 속한다.

[그림 XII-14] 주관적 웰빙의 물질 및 사회적 기반 요인별 대한민국 국제 순위, 2021~2023년 평균



주: 1) 전 세계 143개국 중 해당 요인별 대한민국 순위임(단, 건강수명 및 GDP는 139개국, 부패인식은 138개국, 삶의 자유는 142개국).
 2) 부정 정서 경험과 부패인식의 경우 UN 보고서의 순위 부여 기준을 뒤집어서 부정 정서 경험 및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국제 순위가 높도록 국제 순위를 제시하였음.
 3) 부정 정서 경험과 부패인식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부정 정서 경험 및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 순위가 높게 제시되었음. 여기에서는 부정 정서 경험 및 부패 수준이 낮을수록 국제 순위가 높게 순위를 뒤집어 제시하였음.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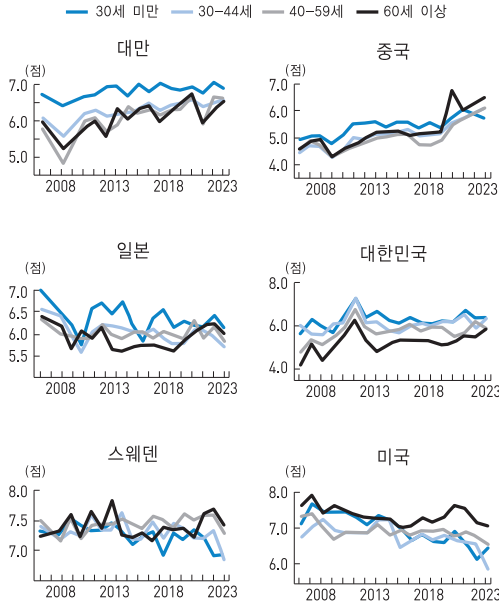
2024년도 「세계행복보고서」는 연령집단별 주관적 웰빙의 비교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국가마다 생애주기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패

턴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생애주기가 개인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노화 과정의 연속일 뿐 아니라 국가정책과 경제, 사회적 발전 경로에 따라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생애주기별 주관적 웰빙의 변화는 각 국가의 생애주기 구성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를 30세 미만의 청년층, 30~44세의 초기 중년층, 45~59세의 후기 중년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나누어 전체 국가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은 2021~2023년 기간 전 연령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순위는 52위이며, 청년층의 만족도 순위는 전 연령의 만족도 순위와 동일하게 52위이다. 한편 초기 중년층의 경우 45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고, 후기 중년층은 55위로 순위가 낮았으며, 노년층은 59위로 순위가 더 낮았다. 한국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청년층이며, 반대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노년층이다.

[그림 XII-15]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과 스웨덴, 미국의 생애주기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청년층과 초기 중년층의 주관적 웰빙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노년층도 하락하지만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다. 그간 연령에 따라 U자형의 양상을 보이던 이들 사회는 은퇴 이후 주관적 웰빙이 상승하는 것은 여전히지만 청년층의 높은 주관적 웰빙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을 경우 중국에서만 노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



[그림 XII-15] 주요 국가의 생애주기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3



주: 1)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국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 점수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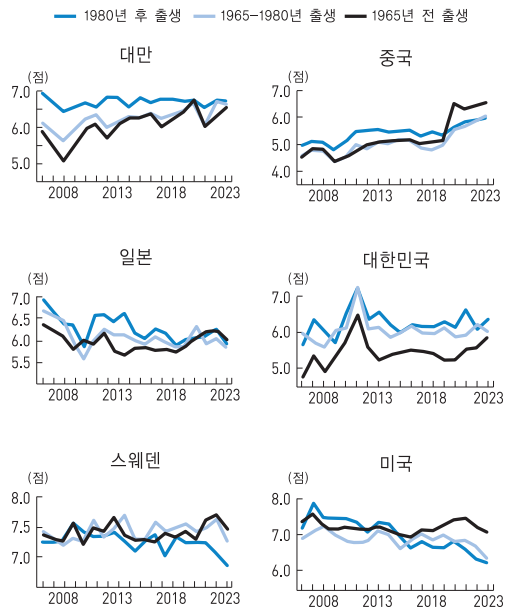
적 웰빙이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주관적 웰빙이 상승세에 있으며, 일본은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그리고 한국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청년층의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두드러지며, 반면 일본은 청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과 대만은 노년층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생애주기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일본은 2018년 이후 노년층의 주관적 웰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출생코호트별로도 주관적 웰빙의 변화 양상을 국가별로 제공한다. [그림 XII-16]

림 XII-16]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스웨덴, 미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양상을 1965년 이전 출생, 1965~1980년 출생, 1980년 이후 출생 등의 코호트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과 미국은 출생코호트 간 주관적 웰빙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면, 한국, 일본, 대만은 출생코호트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은 큰 변화가 없다. 미국과 스웨덴은 1965년 이전 출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중년을 벗어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다른 출생코호트 중 주관적 웰빙이 가장 높아졌으며, 일본, 중국은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주관적 웰빙이 코로나19 이후 급상승해

[그림 XII-16] 주요 국가의 출생코호트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06-2023



주: 1)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국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 점수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2024, 2024.

서 가장 높아졌다. 반면 한국, 대만은 이들 출생 코호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출생코호트보다는 낮은 편이다. 한국, 대만, 일본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의 주관적 웰빙이 다른 출생코호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스웨덴은 하락을 거듭해 다른 출생코호트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맺음말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긍정 정서로서 행복감도 높아졌으며, 부정 정서로서 걱정과 우울감은 낮아졌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일시적이어서 삶의 만족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으며, 행복감은 2020년에 낮아졌다 이후 반등하고, 걱정과 우울감은 2021년에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낮아졌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집단 간 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여성이 더 높았던 삶의 만족도가 이후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연령집단별 주관적 웰빙 격차는 20~30대와 40~50대 간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이들과 60대 이상과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관적 웰빙 수준의 학력집단별 차이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가구소득 집단별로는 400만 원 이상 집단들 간 격차는 다소 줄지만 200만 원 미만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한국이 경제적 성과에 비해 주관적 웰빙이 낮은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은 여전히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삶의 자유를 갖지 못하거나, 미래의 전망이 부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웰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경제적 성과에 맞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주관적 웰빙은 일본과 비슷한 5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생애주기 및 출생코호트별 양상은 청년층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고 노년층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유사하다.